KIRI 리 포 트
글로벌 이슈

호주 야영장 손해보험 사례와 시사점

장윤미 연구원

요 약

호주에서는 2019~2020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6개월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로 인해 최근 호주 야영장 손해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치솟고 보험료 또한 급등하는 상황임. 이 같은 산불 발생은 지엽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건조한 지역의 확대가 원인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분석임.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호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호주에서는 2019~2020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6개월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 같은 피해의 원인으로 많은 과학자가 지구 온난화를 꼽고 있으며 산불 피해와 발생 빈도는 이 같은 기후변화 추세와 함께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1)]

- 2019년 9월 호주 남동부 지방에서 발생한 산불은 우리나라 면적보다 넓은 1700만 헥타르의 산림을 소실시킨 바 있으며[2)], 산림 파괴로 인한 피해는 산사태,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로 이어져 피해 규모를 확대시킴
- 호주 산불의 원인으로 대다수의 전문가가 기후변화로 인해 뜨거워진 기후와 건조한 날씨를 꼽고 있는데, 이는 산불 발생이 지엽적이거나 일시적인 사건이 아닌 지구온난화에 따른 추세적인 현상으로 해석되는 근거임[3)]

○ 호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캠핑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액 증가로 야영장 손해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치솟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 호주에서는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크루즈여행이 줄고 가족·친구·연인과 함께하는 캠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특정 주는 코로나19 이후 캠핑카 판매가 30% 가까이 급등함[4)]
- 한편 호주 보험회사는 2019~2020년 대규모 산불 발생 이후 야영장 손해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커지자 야영장 시설 소유주들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이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함
- 이에 호주캐러밴산업협회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의 보장 기간, 판매 가능한 보험 상품 개수 및 담보 범위에서 야영장 시설 소유주들의 보험가입에 제한이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함[5)]

---

1) 이승준(2020. 5. 11),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피해의 증가와 시사점」,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2)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rp/rp1920/Quick_Guides/AustralianBushfires
3) Fi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References Committee(2020), "Lessons to be learned in relation to the Australian bushfire season 2019-20"
4)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완화하자 캠핑카에 대한 수요가 치솟고 있음; ABC News(2020. 6. 28), "Caravan sales boom during travel ban as young Aussies and families move in on 'grey-nomad holiday'"

-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시설 소유주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무보험이나 사고 시 손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일부보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호주 상원위원회는 호주경쟁및소비자위원회(ACCC[6])가 자연재해 리스크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모니터링하고, 호주건전성규제당국(APRA)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 산업 재정 안정화와 기후변화 완화 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 호주 상원위원회는 보고서[7]를 통해 호주경쟁및소비자위원회가 자연재해 리스크가 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보험료의 가격, 비용, 이익 등을 파악하도록 촉구함
- 또한 호주건전성규제당국이 최악의 기상 변화를 가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 밖에도 일부 보험사가 2025년까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석탄 비중을 줄이겠다고 선언하였지만 현재까지 모든 보험사가 공개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과 같은 기후변화 완화 조치에 참여하지는 않은 상황임을 언급함[8]

○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에도 여행패턴의 변화와 함께 캠핑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호주의 야영장 손해보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 증가로 여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등산이나 캠핑 등 산림 이용 인구가 늘며 2019년 야영장사고배상책임이 의무보험으로 도입된 바 있음
- 그러나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 사태 발생 이후 복수의 손해보험회사가 화재와 각종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야영장배상책임보험 개발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며 보험 상품 개발을 늦추거나 상품 출시를 포기한 사례를 보임
-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산불 발생 빈도가 커지고 있고 피해 면적도 증가하고 있는데[9],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화재 발생 위험 증가 및 야영장 손해보험 상품의 손해율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에 호주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5) https://www.insurancenews.com.au/local/caravan-parks-face-closure-over-insurance-issues
6) 호주경쟁및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공정 거래와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설립된 독립된 연방 법정 기관임
7) Fi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References Committee(2020), "Lessons to be learned in relation to the Australian bushfire season 2019-20"
8) 이 밖에도 한 기후 변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이를 전액 부담하는 구조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납세자가 이를 일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세재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함.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경우 응급서비스부과법(Emergency Service Levy Act 2017)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자금을 일부 수취하는데, 이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높은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부담하는 구조로 이를 보험계약자가 아닌 납세자(Taxpayer)로 변경하여 세금 수취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안임
9) 봄과 겨울철에 건조주의보 발령일수가 늘고 강수량 및 강수일이 줄고 있어 건조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승준(2020. 5. 11),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피해의 증가와 시사점」,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